

독일의 중고령자 경제활동 및 여가지원정책

○ 출장개요

- 출장기간: 2015년 6월 29일 ~ 7월 5일(6박7일)
- 출장자: 강은나 부연구위원
- 출장지역: 독일 베를린
- 과제명: 중고령자 경제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과 정책과제

○ 세부일정

no.	일자	방문기관	주요 면담자	활동사항
1	2015.06.30.(화) 14:00 ~ 16:30	gsub	Dieter Simon, Holger Moller	중고령자 경제활동지원사업의 현황과 특성 설명
2	2015.07.01(수) 14:00 ~ 16:00	KUBIA	Almuth Fricke, Susanne Duwel	노인여가문화교육 및 주정부 여가지원정책 파악
3	2015.07.02.(목) 9:00 ~ 10:00	Lernladen	Mr. Rauch	직업훈련교육 상담기관으로서 Lernladen의 기능과 이용자 특성
4	2015.07.02.(목) 10:30~12:30	Job Point	Anne Doebel, Mr. Keeleci	구직지원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Job Point의 특성과 운영방식 파악
5	2015.07.03.(금) 10:00 ~ 11:20	Job Center	Mrs. Frank	Job Center의 기능과 취업지원서비스 소개, 이용방식 등 파악
6	2015.07.03.(금) 14:00 ~ 16:30	Mehrgeneration Haus	Riehart Palm	세대통합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운영, 그리고 노년기 주거지원상담 모임 현황

1. gsub (perspektive 50plus 사업수행기관)

1) 기관소개

- 사회기업상담유한책임협회로서 1991년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베를린 주 정부의 의뢰로 설립되었으며, 이후 서비스기업으로 발전해왔음
- 현재 고용이나 노동시장 영역이외에 아동과 청소년, 통합정책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으며, 주요 사업은 정부지원정책을 컨설팅, 지원과 평가, 후원금조달 매니징을 지원하고 있음.
- 2015년 현재 160명 근무하고 있으며, 연방정부 및 베를린 주정부의 공공사업을 담당하고 있음
-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일 연방정부의 Perspektive 50plus 사업을 위탁받아 전국의 Perspektive 50plus를 실시하고 있는 Job Center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,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

2) Perspektive 50plus 사업소개

○ 목표

- 고령(50~64세) 장기실업자의 고용기회 개선
- 고령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
- 각 지역(지방)의 가능성을 활성화
- 인구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증진

○ 프로그램 실행 단계

1단계	2005-2007	- 고령 장기실업자의 고용기회 개선 - 지역 네트워크 형성 - 모든 중요 노동시장 관련 주체 연계 - 인구학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접촉
2단계	2008-2010	-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당위 요소를 바탕으로 사업모델 발전과 안정화 - 2010년에 참여한 기초보장사무소 349개를 바탕으로 연방프로그램을 지방으로 확장 - 다중 연계장애물을 가진 고령 장기실업자의 지원을 위한 선택권 개선. 특히 개별적, 집중적, 시간적 장기 지원서비스 제공 - 2010년에만 약 190,000명 활성화. 고령 장기실업자의 56,000명 이상이 정규 고용시장에 편입됨.
3단계	2011-2015	- 계속 지방으로 확장. 가능한 한 프로그램의 전국적 시행. 2011년에 전체 기초보장사무소의 95% 이상인 421개가 프로그램 참여 - 활성화 노동시장정책의 고정 요소로서 이행을 준비하면서 성공한 방안들을 지속시킴.

○ gsub의 역할

- 활성화(activation): 취업, 코칭(일대일, 집단), 교육훈련, 건강증진, 이동(교통)지원
- 통합: 기업지원, 구직자와 기업을 배치(연결), 보조금 지원, 사후관리
- 관리 및 네트워크: 조정, 프로젝트 관리,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증진, 연방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소통증진 지원
- * 고용을 증가를 위한 네트워크 강조: 잡센터 + 기업 + 교육기관 + gsub
- 홍보 및 마케팅: 언론 홍보, 이벤트 및 컨퍼런스 주최, 선도기업시상 등

○ 잡퍼스펙티브 사업의 특징

- 지역별, 센터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 → 잡센터마다 사업내용이 다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
-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며,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정책 결정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아님
- 2015년에 사업 종료함. 사업이 다양하고 일률적이지 않아 행정가들의 불편함
- 2016년에 새로 시작하는 중고령자 경제활동지원사업이 2개가 있는데, job perspective보다 단순하고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한 상대적으로 일률적인(전국적으로 표준화되는) 사업임

3) 기타 사업

○ 인식증진사업(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변화추구)

- 영화 공모: 젊은 감독 대상. 노인과 일을 주제
- 사진 공모: 노인+일+실업자 주제로 사진을 공모하여 엽서로 배포

○ 선도기업 시상

- 선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으며, 소개하고 알리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
- 주로 중소기업에서 중고령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, 이러한 기업을 발굴해서 동기부여해주고 있음.
- 대기업은 젊은 인력 중심임

○ 잡센터

- 장기실업자(최소 2년 실업)의 직업 연계
- 신체적,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필요한/적절한 일과 연계
- 건강문제 지원: 대학이나 병원과 연계. 건강에 맞는 일자리 조연 (일부 줍센터)
- 일부 잡센터의 경우, 정신상담가나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상담 지원
- 업무처리: Job Center에서 필요한 전문인력(상담사, 물리치료사)을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기도 하고, 일부는 잡센터에서 해야 하는 전문사업을 외부에 위탁해서 수행하기도 함.
- 일차적인 역할: 직업 알선

- 이차적인 역할: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집중지원(직원 전문화, 외부 프로그램 연계)
예) 알콜릭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. 알콜릭을 치료한 후 취업교육 및 직업알선 (잡센터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 지원 가능)
- 잡센터의 이미지 개선 노력: 실업자가 잡센터에 오는 것에 대한 낙인이나 거부감 있음.
*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개선노력(친철, 환경개선 등)

2. KUBIA(Kompetenzzentrum fur Kulter und Bidung im Alter)

1) 독일의 문화여가정책

○ 가족청소년문화청소년부

- 문화교육이 핵심이며, 연방정부와는 단기성 프로젝트를 같이 함
- 문화와 여가 영역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책임임

○ 노르드라인 주정부 및 KUBIA

- 1800만명 인구가 있으며,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노인문화여가활동을 담당하고 있음
- 인구구조 변화(고령화)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가족·아동·청소년·문화·스포츠부는 노인문화교육센터를 설립
- 노인문화교육센터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문화여가연구, 상담, 자격증관리, 네트워크, 문화여가시설 등에서의 사회적 혁신모델을 지원
- 쿠비아의 직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이 근무
- 쿠비아의 지속가능성: 노인의 문제는 정당이나 장관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문제임. 시민과 노인의 삶의 직결되므로 정당이나 장관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함.

2) 노년기 문화교육

○ 노년기 문화교육의 필요성

-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여가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구비중이 달라짐. 특히 문화참여자 중 노인인구비중이 높아짐.
- 노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보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(독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약 23%)
- 10년전까지는 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음. 그러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교육의 필요성 제기
- 치매를 가진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박물관이나 콘서트홀,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델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보편화

- 노년기에도 노인들이 문화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, 지원 대상은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서비스 제공자)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함
- 교육대상: 사회교육자, 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

○ 주요사업

-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증진: 노인들도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자의식을 개선하고, 시민들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
 - * 노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노인 스스로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시도
- 정기적인 세미나: 노인을 위한 음악교육 등
- 세대통합 방법 모색
- 전문대학과 커리큘럼 개발하여 교육실시. 1년 교육으로 수료증 제공
 - : 예술가, 간호사, 직장인 및 비직장인
 - : 2017년부터 석사과정 도입 예정
- 연2회 잡지 발간

※ 쿠비아 모델의 시작

-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2007/2008년에 노인문화 연구
- 전통문화(콘서트 등), 사회복지시설, 평생교육, 종교기관 등에서 노인문화교육 필요성 제기

○ 정부지원 예산 및 참가비

- 세미나: 프로젝트는 1만유로, 개인별 참가비는 25유로
- 대학프로그램: 144시간 교육. 8개 모듈. 참가자 수강료 자비 부담
 - 운영비로 주정부에서 25만유로 지원

3) 노인문화교육프로그램 사례

○ 합창단/성가대 지원

-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에는 약 2천여개의 합창단/성가대 운영 중
- 노인들이 노령화되면서 목소리가 달라짐. 고음 불가, 긴 곡은 어려움 등
- 지휘자도 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
- 노인에 맞는 악보 만들기, 지휘자 및 단원 교육 실시

○ 농촌지역 노인의 문화여가증진 프로그램

- 농촌지역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부족함
- 농촌지역 노인들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수 있도록 쿠비아가 관련 시설을 상담하고 컨설팅
- 주정부로부터 연 14만 유로 지원받음

- (한계) 도시적인 테마가 중심이며, 저학력 노인이 많고, 문화시설이 부족 등

○ 문화시설의 노인인력 활용 = 자원봉사

- 농촌의 젊은 계층이 사라짐에 따라 문화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짐
- 문화시설에서 경비를 보거나 가이드를 하는 사람을 노인인력 활용
- 노인을 교육시켜 자원봉사자로 활용

○ 치매노인 문화활동 지원

- 집에서 가족수발을 받는 75명 치매노인 대상.
- 치매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화생활을 어렵게 함
- 오케스트라 공연은 조용히 집중해서 들어야 함. 그러나 치매환자가 있으면 공연에 방해되기 때문에 치매노인이나 가족이 가지 못함.
- 치매노인을 위한 오케스트라공연(콘서트) 개발
- 오케스트라 단원교육, 공연시간을 오후시간으로, 공연시간은 1시간정도로 줄이고 이고,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
- 기존의 콘서트보다 개발된 콘서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과 호응이 높음

** 다음 테마는 장애인의 문화여가임.

○ Mix Ages

- 유럽연합기금 지원
-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예술활동 실시
- 노인은 새로운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, 청소년은 노인의 노하우를 전달받음
(참고 사이트) [www. mixages.eu](http://www.mixages.eu) → Kubia 사례 제공(영문)

3. Lernladen(Learning Shops in Berlin)

○ 개요

- 베를린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, 주정부 80%, 잡센터 20% 지원을 받음
- 직업교육 DB 보유
- 잡센터에서 직업교육 상담이 필요한 실업자를 센터로 보냄
-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상담하는 기관
- 실업자는 교육훈련 관련 상담을 받고 지원서를 작성해서 교육훈련을 신청
- 부티크의 개념으로 실업자가 센터에 와서 편하게 교육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상담을 요청

○ 브란덴부르크주 전체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

- 약 3만개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있으며, 교육훈련시설도 960여개에 이름

- 실업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,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름
- 실업자에게 자부담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정보도 제공

** 센터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천할 때 중립을 지킴(편협한 정보제공 안함)

- 3~4개의 프로그램을 추천하고, 최종 결정은 실업자의 몫

○ 교육훈련과정

- 잡센터에서 교육훈련비 지급과정은 몇일에서 몇 개월까지 다양함.
- 독일에서 직업교육은 보통 3년 걸리지만, 잡센터에서 의뢰한 경우 예외적으로 2년으로 단축 가능
- 교육훈련비가 무료가 아닌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도 실시

○ 교육훈련프로그램 상담

- 실업자가 센터에 방문하면 보통 90분 정도 상담실시
- 월평균 350명에서 400명 상담
- 18세부터 상담요청 가능

○ 잡센터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실업자를 보내는지

- a) 능력은 있는데 최근 직종변화나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/직종을 바꿔야 하는 사람(취업가능성이 높은 집단)
 - b) 교육의 기회가 없고 전문직으로 발전가능성이 희박한 사람(취업가능성이 낮은 집단)
 - 새로운 훈련이나 능력이 필요.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
 - 외국인의 경우, 언어교육도 같이 상담
- (취업가능집단: 취업가능희박집단 = 1:3)

4. Job Point

○ 잡포인트 설립배경

- 잡포인트는 덴마크의 모델을 베를린에 도입한 것으로 주정부와 잡센터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운영.
- 주정부 50%, 잡센터 50%의 예산을 지원받으며, 잡 센터로부터 직업알선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음.(매년 잡포인트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짐)
- 작년까지 베를린에 잡포인트가 1개소만 있었으나, 최근에 2개가 더 생겨 총 3개의 잡포인트가 베를린에서 운영되고 있음.

○ 특징: 단기간에 단순한 절차를 걸쳐 구직활동을 구인자 스스로 수행

- 누구든지(실업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) 잡포인트에 방문해서 자신의 이름이나 경력을 공개하지 않고,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인광고를 보고 본인이 스스로 기업에 연락해서 구직작업을 실시
- 잡센터의 한계: 공공기관의 구직절차는 어렵고 복잡함. 서류작성, 낙인,
- 잡포인트는 실업자가 직접 와서 잡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인광고를 보고,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인터뷰까지 실시
- 과정: 벽에 있는 구인광고 검색 → 기업정보 등은 잡포인트에 있는 컴퓨터 이용 → 지원서류 작성 → 복사 또는 스캔 → 구직신청
- 잡포인트의 전화, 복사, 인터넷 이용 모두 무료
 - ** 한달에 3500명에서 4000명이 방문
- 운영시간: 평일 9시- 7시, 토요일 9시-2시 (기존의 공공기관의 운영시간보다 길게 운영함. 일반 상점시간과 동일하게 운영)

○ 직원의 역할

- 직원 10명(파트타임포함). 근무시간이 월~토, 저녁시간까지 운영하므로 직원이 모자람
- 이용자에게 잡포인트 설명
- 한달에 200여개의 미니잡 소개
- 구인광고가 모아지고 관리함. DB 구축하고 관리(정기적으로 업데이트)
- 상담업무: 잡코칭, 초기상담, 구직과정 설명, 지원서류 작성, 인터뷰 방법 등 설명
- 전문상담은 사전예약을 받으며, 보통 60~90분 소요. 일회성부터 2~3회까지 상담 실시

○ 장점

-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잡포인트를 설치(대중교통이 좋고, 상점이 많은 곳에 위치)
- 잡포인트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도록, 그냥 쇼핑 오듯이, 가게 들리듯이 편하게 잡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

○ 잡포인트의 성과평가 지표

- 방문객수(명부는 없음), 기업의 구인의뢰수, 실업자와 기업과의 매칭건수, 인터넷 방문객수, 상담건수

○ 잡포인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선호도

- 실업자와 연결이 잡센터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업도 잡센터보다 잡포인트를 선호함.
- 잡센터는 구직 신청할 기업을 실업자에게 지정해줌. 그러나 잡 포인트에서는 실업자의 선호대로 본인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선택해서 지원함.
- IT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일자리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. 그러나 직접 와서 구인광고를 보고 직장을 구하는 계층은 여전히 높음.
- 벽에 구인광고를 나열 -> 다른 직종의 구인광고를 갈게 보고 비교하게 되고, 새로운 정보

를 접하게 됨(컴퓨터는 여러 정보를 한번에 보지는 못함)

○ 만족도 조사: 2년에 1회 만족도 조사 실시(이용자, 기업 모두)

- 잡포인트의 만족도는 90%이상이 만족.

○ 이용자 특징: 30대부터 50대까지 이용. 신입 및 경력자 모두 이용

○ 55세 이상 고령자의 이용율

-고령자가 취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, 최근 기업의 변화가 생김. 최근 전문직의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전문분야에서 고령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 이로 인해 고령 전문가를 찾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.

○ 기타 활동

- 매월 기업초대 행사 실시: 기업 및 일자리 소개. 실업자가 질의응답, 당일 면접 등
- 집단프로그램: 주제를 정해놓고 집단으로 정보제공
- 연1회 소규모 직업박람회 실시

* 베를린 시외, 베를린 외곽, 해외(헝가리, 스위스 등)의 기업으로부터 구인신청 받음.

5. Jobcenter Berlin Neukölln (베를린 신켈른 지역)

○ 개요

- 900여명의 직원이 근무
- 지역별로 다르지만 소규모 기관은 200명에서 최대 1000여명 근무
-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무원들과 직원들이 근무
- 2만명의 실업자 관리
- 사업예산: 연간 5천300만유로 (재교육, 직업알선 등)

○ 업무내용(조직구조)

하나의 실에 7개 팀이 운영 / 총 6~8개의 실을 운영

- 팀1: 신청 업무(실업자들이 필요한 서비스/상담 신청)
- 팀2-3: 직업 알선.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구분됨. 장기간 소요
- 팀4: 25세 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진행
- 팀5-6: 실업수당 담당
- 팀7: 실업자 중 단시일내에 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담당. 2010년에 신설됨

* 처음으로 실업자가 되면 6자리 숫자로 된 번호를 부여받으며, 잡센터 방문/서비스이용 이력이 기록됨.

○ 실업수당 업무의 복잡성

- 실업자의 소득에 따라 실업수당이 가감됨. 실업자가 미니잡에 참여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 실업수당을 감액해야 함
- 실업수당으로 집세가 부족하면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, 집세 보증금이 줄어들거나 증가하는 것에 따라 실업수당이 달라짐
- 자녀가 수학여행으로 거금이 필요하면 실업수당에서 지원되며, 자녀출산에 따라서도 수당이 달라짐.
 - ➡ 우리나라처럼 실업수당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집세, 자녀보육이나 교육 등에 따라 실업수당이 달라짐
 - ➡ 실업수당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중단이 있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하지만, 그에 상응하는 구직 노력을 보여줘야 함.

○ 1유로 잡(job)

-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시간당 1.5유로의 사회봉사직을 수행
- 잡센터에서는 실업수당을 지급하고, 사회복지기관이나 기업에서 시간당 1.5유로 지급
- 주로 공원 청소, 요양원에서 말벗, 산책, 책읽어주기, 식사도움 등의 일을 수행
- 시간당 1.5유로는 급여 개념이 아닌 활동비(식대, 차비 등)의 개념임
- 하루 8시간 근무. 1년간 참여가능하고 2년동안 참여 불가. 2년 후에는 다시 참여 가능 (실업자들이 1 유로 잡에 만족하고, 취업노력을 게을리함)
- 잡센터와 사회복지단체/기업과 매년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

○ 실업수당(하르츠 I)과 기초생활수급(하르츠 II)

- 실업수당: 직장경력(실업보험 가입기간)에 따라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결정됨. 재산이나 배우자의 소득과 무관
-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에 재취업을 못하면 하르츠 II로 넘어감
- 하르츠 II: 기초생활보장. 본인의 재산이나 배우자 소득 등을 계산하여 급여 지급

○ 실업자 서비스 제공 과정

- 생애 첫 실업자를 담당하는 팀은 별도로 운영
- (신청) 잡센터에 오면 먼저 신청 사무실에 와서 필요 서비스 신청(대분류/ 실업수당, 직업알선 등)
- (초기상담) 신청창구에서 실업자에게 번호표를 주고 어느 사무실로 가야 하는지 알려줌. 해당 사무실로 가면 자신이 받은 번호표가 뜨는 테이블로 가서 초기상담 실시
- (집중상담) 초기 상담이 끝나면 필요 서비스에 따라 다시 상담창구를 알려줌.

** 신청창구를 제외하고, 별도의 상담실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가능

6. Mehrgenerationenhauser in Berlin (세대통합의 집)

1) 기관소개

- 사회복지기관인 Albatros에서 운영
- 전 독일에 약 450개의 세대통합센터가 있으며, 베를린에 8개의 세대통합센터 운영
- 센터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이 곳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(이민자, 유아, 젊은 계층, 노인 등)
- 공통내용: 자율적인 참여, 교육과 적응, 노인과 수발, 서비스 제공(청소, 식사, 보육 등)

2) 세대통합의 집(이용시설) 개요

○ 개요

- 2006년부터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주도 하에 세대통합공동주거 사업 도입
- 세대통합공동주거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세대 간 만남, 소통,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거형태
- 세대통합공동주거는 다른 연령과 생활조건을 가진 거주인들의 필요에 따른 상부상조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공간과 통합의 장소로 기능함.
- 열린 장소(offener Treff)로서 세대통합공동주거: 세대통합공동주거는 연령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 주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과 연대에 기여
- 세대통합공동주거 운영은 담당인력들의 역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 사회인프라 구조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
- 2013년 기준 전국에 450개 운영
-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대통합공동주거 I 실시.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대통합공동주거 II 실시
- 세대통합공동주거의 공간은 개인공간, 공용공간, 개방공간으로 구분

○ 연방정부사업의 애로사항

- 정부가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기존의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어려움. 새로운 가족부 장관은 세대통합센터를 지속하기로 결정함.
- 해당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초대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. 국회의원들이 오게되면 언론에 나가게 되므로 프로그램 홍보효과가 높음
-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, 국회의원 등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함

○ 세대통합의 집 예산

- 가족부에서 450개 모델 운영하며, 연방정부에서 3만유로, 지방정부에서 1만유로 지원

- 지자체의 예산이 없으면, 직원(공무원)을 지원하거나 건물을 지원
- 50%는 직원인건비, 50%는 사업비로 활용

3) Albatros의 세대통합의 집 운영 현황

* 센터(만남의 장소)

- 여성청소년센터, 이주민가족센터, 유치원

○ 유치원

- 여성청소년센터와 이주민가족센터 건물은 원래 알바트로스에서 운영하고 있었음.
지역에 젊은 가족이 많으나 유치원이 없어 시에 요청을 해서 유치원은 설치
시에서 유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건물과 대지를 알바트로스에 1 Euro에 판매(상징
적인 의미)
알바트로스에서 허름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치원으로 활용 (독일의 유치원은 주로 종교
재단이나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며, 개인/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극소수임)
부모소득에 따라 유치원 등록비 차등

○ 이주민가족센터

- 다이닝 공간: 개인이 가족모임이나 친교모임을 위해 대여 가능(50 유로) /센터 운영에 도
움
- 월1회 건강진단, 월1회 시청직원과 이주민과의 간담회 실시

○ 여성 청소년 센터

- 구에서 100% 지원/ 청소년의 여가선용 목적

4) 연방정부의 프로젝트 특성

- 독일은 16개 주가 있음
-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는 2년 단위로 프로젝트를 실시함.
- 기관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2년간 지원 및 평가
- 16개 주에서 2개씩만 프로젝트를 실시해도 32개의 모델이 만들어지며, 32개 중에서 성공
적인 모델이 개발되면 보편화되도록 지원
- 연방정부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, 지속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(지자체에서 돈
이 없다고 하면 어쩔수 없음)

5) 주거포럼 운영(센터장이 별도로 참여하고 있는 모임)

- 50세 이상이 되면, 자녀들이 분가하게 되어 집에 부부만 남게 되고 방이 남는 등 집이 큼.
-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주거를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

- 어디서 살 것인지, 집의 크기는 얼마정도인지(개인의 재산, 대출가능정도 등), 언제 입주할 것인지(은퇴 등과 관련) 등을 논의 → 집 건축(건축업자, 계약관련 등) 정부 필요
- 최소 1-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
- 공동주택이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을 수 있는 주거시설 희망
- 노년기 주거지원서비스의 형태.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임(20여년간 운영)
- 처음에는 몇 명이 공동주거를 만들기 위해 참여했지만, 준비과정동안 멤버가 바뀌고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.
- 각 단계별로 모임이 운영되며, 그룹마다 선호가 다름(장애인, 건강하지 않는 그룹 등)